

신소설 은유 연구

한은주, 진정, 박민경 (이화여대 대학원 국문과)

목 차

1. 들어가며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3.1 이론적 배경
 - 3.1.1 개념적 은유
 - 3.1.2 은유적 사상의 양상
 - 3.2 선행연구
4. 개화기 신소설의 은유양상
 - 4.1 <국가>
 - 4.2 <교육 및 지식>
 - 4.3 <여성과 여성의 삶>
5. 결론

<참고문헌>

1. 들어가며

'시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으로 어떤 것이 유효할까?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관점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이다.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거나 해당 시기의 신뢰성 있는 언론 매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또한 특정한 인물들의 활동을 살펴보거나 해당 시기의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는 등의 방법도 유용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실증 자료들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매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의 양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시대를 이해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언어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학에 많은 하위 부문이 존재하기에, 이에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음운이나 어휘, 문법 등의 양상을 연구하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작업일 터이나, 우리는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의 은유 양상'을 살펴보겠다.

우리의 개념 체계 자체는 은유로 구축이 된다. 이러한 은유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언어적 차원이 아닌 개념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개념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등을 구조화"(Lakoff & Johnson(1980)하는 것이고 이러한 '개념 체계'는 상당 부분 '체험'에 근거한 '은유'로 구축된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본고의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우리가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볼 시기는 '개화기'이다.

일반적으로 1876년 개항 이후 1910년 한일합방 시기까지의 기간을 개화기라 일컫는다. 이 시기는, 개항이라는 외적 조건과 개화, 개혁에 대한 내적 요구로 인해, 대외교류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국내 정치,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예술이나 교육 분야 등에서 '격변'이라 칭할 만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근대화화 자주성 확립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곧, 서구 문물의 유입과 일본의 변화를 접하면서 근대화화에 대한 지식인 사회의 요구는 커져 갔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사회 각계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 변화의 이면에는 외세의 침략 위협, 외세에 의한 강제 개항, 조약의 불평등과 일본의 식민지 야욕의 문제가 항존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이 시대의 화두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는 '개화기 언어의 은유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신소설'에서의 '은유 양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개화기를 이끌어갔던 지식인들이 문학을 수단으로 대중 계몽에 앞장섰던 것으로 볼 때, 이 시대 대표적 문학 양식인 '신소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개화기의 변화는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는 문학이 '인간'이 처해 있는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기에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근대시기로의 전환기에 새로운 학문과 문학조류의 유입은 지식인 사회의 강한 열망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 양식에 새로운 내용 혹은 시대적 이념을 담는 것을 넘어 새로운 양식을 형성하기까지 이른다. 신체시나 신소설류가 그것인데 이들은 전통적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를 지닌 것들이나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기 위한 새로운 그릇으로서 창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기간의 한계 상 모든 신소설 작품들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소설 전편을 살펴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이인직 <혈의 누>, <은세계>, 이해조 <자유종>, 안국선 <금수회의록>¹⁾. 그리고 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말뭉치 Uniconc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를 쳐서 앞뒤에 연결된 어휘들을 살펴보며 은유 양상을 추출하였다.

은유 양상의 대상어로 다음의 세 가지를 삼았다. <국가>, <교육 및 지식>, <여성과 여성의 삶>. 주변국과의 관계와 자주권 확립의 문제, 그리고 계몽주의의 핵심인 교육의 문제와 교육의 주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단면을 얻고자 하였다.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3.1. 이론적 배경

은유에 대한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갖는다.

전통적으로 ‘은유(metaphor)’는 수사학의 전유물로서 문체론이나 시의 기법에서 논의 되어 왔을 뿐 연구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았다. 기원전 3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란 다른 사물에 속하는 명칭을 한 사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일상적인 용어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만을 가져다주며, 어떤 참신한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은유로부터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학적 은유는 활기차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이라고 생각한 반면, ‘일상적’, ‘관습적’, 혹은 ‘정지된’ 은유는 흥미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1960년대 고전이론의 은유에서 시선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성언어학이 주창되면서 일상 언어에 나타나는 은유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1970년대 후반부터 인지언어학은 은유에 대해 커다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시기를 기점으로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으로 나뉜다.

은유에 대한 고전이론과 현대이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akoff 1993: 202-3 참조)

고전이론	현대이론
a. 은유는 사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이다.	a. 은유의 위치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정신영역(즉, 목표영역)을 다른 정신영역(즉, 대상영역)에 의해 개념화하는 방식에 놓여있다.
b. 은유적 표현은 일상언어의 영역과 상호 배타적이다.	b. 교차영역 사상(寫像)으로서 ‘은유’는 자연언어 의미론에 매우 중심적이며, 문학적인 은유연구는 일상적 은유 연구의 확장이다.
c. ‘은유’라는 용어는 어떤 개념에 대한 하나	c. ‘은유(metaphor)’라는 용어의 개념체계에

1) 본고는 이인직/이해조/안국선/신채호의 작품을 담아 동아출판사가 1995년 발행한 '한국소설문학대계 1'을 바탕으로 한다.

<p>이상의 낱말이 ‘유사한’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보통의 관습적 의미를 초월해서 사용되는 새롭거나 시적인 언어 표현으로 정의된다.</p>	<p>서 교차 영역사상을 의미하며, ‘은유표현 (metaphorical expression)’은 교차영역사상의 표면적 실현인 언어표현, 즉, 낱말, 구, 문장을 가리킨다.</p>
--	---

은유의 인지적 개념은 레디의 수도관 은유에서 시작된다. 일상언어는 주로 은유적이라고 밝히면서 은유의 위치는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있고, 세계를 개념화하는 우리의 일상적 관례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우리의 일상행위는 경험을 은유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은유는 그 은유가 은유로서 가지는 조건으로 유사성과 이질성으로 볼 수 있다.²⁾ 그렇다면 이질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질성이란 ‘A는 B이다.’에서 항목 A와 B가 너무 유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좋은 은유의 조건에는 다른 의미장에서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주요 특성은 공유해서는 안 되지만 항목 간에 기본적인 특성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리치(Leech 1981: 37-9)는 ‘바다말’이 ‘배’의 은유로 사용된 보기를 예를 들고 있다.

‘말’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유정물 b. 육지 c. {타고다님} d. {위-아래로 이동} e. {전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무정물 b. 바다 c. {타고다님} d. {위-아래로 이동} e. {전쟁용}

‘말’과 ‘배’는 이질성과 유사성을 함께 가진다. a와 b는 이질성이며, c-e는 유사성인데, 이질성안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어 의미의 유추와 확장의 작용으로 은유의 현상이 발현하게 된다.

3.1.1. 개념적 은유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1980년 레이콕 & 존슨 (Lakoff & Johnson)의 『삶으로서의 은유』 (Metaphors We Live By)에 의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 후 깁스(Gibs 1991, 1994)와 케베체쉬(Kovecses 1987, 1990, 1995, 2002), 터너(Turner 1986), 그래디(Grady 1997) 등 많은 학자들의 연구로 인지 언어학의 핵심적인 이론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은유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를 인지언어학적 견해 혹은 개념적 은유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개념적 은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은유의 본질은 언어적 현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념의 속성이다. 따라서 은유

2) 에이치슨(Aitchison 1994a: 149-50)에서 은유란 어떤 낱말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이 어겨진 용법으로 정의하고 가장 은유다운 은유를 원형적 은유(prototypical metaphor)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은유다운 은유의 조건을 유사성과 이질성의 공존으로 이해하고 있다.

는 언어로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해 사고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둘째, 은유의 기능은 단지 예술적 혹은 미적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인지적 기제의 역할을 한다.

셋째, 은유의 기반은 비교 대상의 객관적인 유사성 외에도 체험적 상관성, 비객관적인 유사성, 지각되는 구조적인 유사성, 두 개념이 갖는 생물학적·문화적 뿌리 등 인간의 다양한 체험에 근거한다.

넷째, 은유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은유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에서 불가피한 인지과정이다.

인지 언어학적 견해에 따르면 은유의 정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영역, 즉 목표영역(target domain)을 다른 구체적인 개념 영역, 즉 근원 영역(source domain)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인 [사랑]을 구체적인 개념인 [여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목표영역은 근원영역]이며, 이것이 바로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 불리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방식에서 [사랑]은 목표영역, [여행]은 사랑을 이해하는 근원영역이 된다. 그러므로 개념적 은유는 두 가지 개념영역으로 구성되며, 인간 경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조직화이다. 여기서 용어상 개념적 은유와 은유적 언어표현(metaphorical linguistics expressions)을 구별하는데, 후자는 전자를 언어적으로 구체화하는 낱말이나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영역이며, ‘나그네길’은 근원영역인데, 추상적인 설명이 어려운 ‘인생’의 개념을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나그네길’을 통해 표현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추상적 목표영역을 구체적 목표영역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에 일련의 체계적인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이 대응관계를 전문용어로 ‘사상(mapping)’ 또는 ‘투사(projections)’라 부른다.

X는 Z와 관련하여 Y이다

X = tenor Z = ground Y = vehicle

(은유구조)

이러한 은유는 위의 표에서처럼 은유구조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리차즈(Richards 1936:93)의 ‘tenor’(중심뜻), ‘vehicle’(매체), ‘ground’(배경)라는 은유의 구조와 상통된다.

즉, ‘근원영역’은 위의 표에서 나타난 형식에서 본다면 ‘vehicle’(매체)에 해당되며, ‘목표영역’은 ‘tenor’에 해당하며, ‘사상’은 ‘ground’에 해당한다. 이 경우 ‘사상’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에 대한 경험상의 체계적인 대응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개념화의 사상관계를 레이콕(Lakoff 1987a: 387-9)에서는 존재론적 대응관계와 인식론적 대응관계로 나누어진다.

다음의 예에서 ‘화’는 그릇 속에 담긴 액체의 열로 이해되는데, 먼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실재물에 관한 ‘존재론적’(ontological)대응의 경우를 예로 보겠다.

화는 그릇 속의 액체이다.

근원영역: 액체의 열

- a. 그릇
- b. 액체의 열
- c. 열의 척도
- d. 그릇의 압력
- e. 끓는 액체의 소동
- f. 그릇의 저항에 대한 한계
- g. 폭발

목표영역: 화

- 몹
- 화
- 화의 척도
- 경험화된 압력
- 경험화된 소동
- 화를 참는 인간의 능력한계
- 자제력 상실

‘인식론적’(epistemic)대응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근원영역(액체의 열) → 목표영역(화)은 그릇 속의 액체가 어떤 한계를 넘어서 열을 받을 경우, 압력은 그릇이 폭발할 지점까지 높아진다. 즉, 화가 어떤 한계까지 넘어서 증대할 경우, 압력은 사람의 자제력을 상실할 지점까지 높아진다. 폭발은 그릇을 손상시키고, 주변사람들에게 위협하다. 이는 자제력의 상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게 한다. 폭발은 적절한 힘과 반-압력을 가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즉, 자제력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 압력이 통제된 해제를 통해 위협을 줄일 수 있다. 화는 통제된 방식으로 해소되거나 적절히 발산시킬 수 있다는 인식론적 개념인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을 추리 가능한 것은 함의를 사용하는데 있다.

3.1.2. 은유적 사상의 양상

개념적 은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구조적 은유, 방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로 대별된다.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념적 은유 [논쟁은 전쟁]에서 [논쟁]이란 추상적 개념의 구성요소를 [전쟁]의 구성요소로 체계적으로 구조를 제공받는 은유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편을 아군으로, 상대방을 적군으로, 논쟁에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을 개념화하였다.

존재론적인 은유(ontological metaphor)는 추상적인 감정, 경험, 사건 등에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경험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구체적인 존재, 곧 사물에 비유한다. 개념적 은유 [마음은 기계], [정치적 힘은 물리적 힘], [어려움은 무거운 물건]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은유 방식 중에 가장 많은 형태라 할 수 있다.

1. 시간의 개념화

예) 시간이 {흐르다/멈추다, 다가온다/지나간다}

시간이 {길다/짧다}

시간{이-을},{있다/없다, 남다/모자라다, 별다/쓰다/소비하다, 아끼다/낭비하다}

2. 마음의 개념화

예1) 마음이 {크다/작다, 넓다/좁다, 무겁다/가볍다}

마음을 {뒹는다/더럽힌다}

{자존심, 우정}에 금이 갔다.

예2) {정성, 애정}을 쏟다.

호의에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예3) 마음이 움직인다.

분노로 출렁인다.

마음이 {가라앉다, 잠잠해지다}

3. 이론과 언어의 개념화

예1) 이론을 {다지다, 쌓다, 세우다, 완성하다, 고치다, 무너뜨리다}.

이론이 {튼튼하다/ 약하다}

이론이 {새롭다/ 낡았다}

예2) 이 이론은 소화하기 어렵다.

그 이론은 씹어 볼수록 더 오묘하다.

그는 낡은 이론에 식상하고, 새로운 이론에 굶주렸다.

방향적 은유는 분위기나 경제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쉽게 공간 지향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아래, 중심-주변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과 관련지어 추상적 개념을 개념화 하는 은유로 [힘은 위, 힘의 부재는 아래], [양은 많음이 위, 적음이 아래], [평가는 좋음이 위, 나쁨이 아래]등이 방향적 은유의 예이다.

이런 다양한 은유 종류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통해 인간의 개념 구조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2. 선행 연구

은유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 전부터 되어왔다. 그래서 앞서 기술했듯이 전통적 관점의 은유에 대한 개념과 현대 이후의 은유에 대한 관점으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학위 논문에서 '은유'주제는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나타난다. 「여성인체의 은유적 표현에 대한 연구」 원순란(1994³⁾)와 「회화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은유와 환유-여성성(性)과의 관계

를 중심으로」 정지현(2002)⁴⁾ 등이 미술 분야에서 나타나고, 「서비스 광고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인쇄 매체 광고의 심상정보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전현주(2000)⁵⁾과 「은유의 논증 기능-광고에 사용된 은유 표현을 대상으로」 유근미(1998)⁶⁾가 광고학에서 나타난 은유연구 논문이다. 다른 외국어와 비교된 은유 논문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은유 표현 연구-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정치 은유 표현」 Li,Yelena(2006)⁷⁾이 있다. 또한 건축학에서는 「건축 공간의 은유적 의미체계와 은유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조영수(1998)⁸⁾, 「공간의 은유적 해석에 관한 연구」 김지영(1999)⁹⁾ 등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문학에서부터 철학, 언어학, 건축학, 미술 관련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언어학에서 바라본 은유 연구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많은 언어학 관련 연구 자료 중에서도 국어학에서 바라 본 은유 연구 자료를 조사 할 것이다.

「은유로서 ‘여성’-여성 미학의 딜레마」 유진옥(2005)¹⁰⁾, 「여성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속담 · 속언을 중심으로」¹¹⁾, 「언어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전혜영(2005)¹²⁾ 등은 ‘여성은유’라는 주제를 통해 ‘은유’의 한 현상을 깊이 있게 접근하여 논하고 있다.

「구조 언어학 모델구성에 있어서 은유의 역할-소쉬르와 엘슬레우의 언어 이론을 중심으로」 신정애(2000)¹³⁾, 「은유와 의미의 불확정성의 문제-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서」 홍진

3) 섬유예술분야로 여성의 인체를 은유적 관점에서 변형(變形)하여 제작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시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헌자료의 분석으로 자료 분석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화여대 석사학위 1994)

4)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성과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의 모순 사이에서 내면적 자아가 서로 부딪히는 정체성의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런 여성작가의 갈등을 작품으로 표현하는데 있어서 은유가 어떤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 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인간으로서 실존적 인간의 갈등표현이 사회적 관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02)

5)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0)

6)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1998)

7)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2006)

8) (중앙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1998)

8)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1999)

10) 한국카프학회, 카프카연구 제14집 63~86

문학에서 여성글과 남성들의 차이점을 사회적 성 차이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 차이를 글쓰기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페미니스트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여성성’D 그들의 해체주의적인 기본 입장으로 인해 실제의 여성을 지칭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 이성 중심의 담론을 전복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은유로서 기능을 한다고 한다. 지그리트 바이겔(Sigrid Weigel)은 최근 여성미학의 논의에서 ‘여성’의 이러한 은유적 기능에 대해 여성해방적인 관점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여성적인 것’, ‘여성성’, ‘여성’의 의미가 본질론과 반본질론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위치이동하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여성성’이 은유의 기표인 여성 역시 가부장제적 상징 질서의 산물이 아닌가를 논하고 있다.

11) 이화여자대학교, 전혜영

언어표현 속에 남녀 성별에 따른 불평등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여성 대상어의 하나인 여성관련 속담을 대상으로 은유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모습을 찾고 있다.

12) 이화여자대학교 전혜영, 여성학논집 제22집 1호(2005) 55~77

한국에서 ‘여자’와 ‘남자’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상 표현 속에 담긴 은유를 파악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관점을 수용하여, ‘여자’와 ‘남자’라는 단어가 어떤 동사와 결합하여 언어(collocation)를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대상으로 은유 방식을 찾아봄으로써 인식의 양상을 밝히고 있다.

13) 신정애 고려대학교 대학원(2000)

기(1996)¹⁴), 「셰익스피어의 메타 연극에 나타난 Theatrum Mundi 은유연구-Hamlet, Macbeth, As you like it, The tempest를 중심으로」 송원대(1995)¹⁵), 「‘은유(Metaphore)’의 의미론적, 화용론적 이해」 장지연(1993)¹⁶), 「은유(Metaphre)의 연구-언어학적 해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홍이호(1987)¹⁷ 등의 학위논문들과 「한국어의 은유 표현 연구-정치은유를 중심으로」 변정민(2002)¹⁸), 「일상 언어로서의 영어 은유에 대한 EFL 학습자의 인식-개념적 은유 이론에 기초한 질적 분석」 김영실(2006)¹⁹), 「문화적 은유와 철학적 은유」 최영진(2004)²⁰), 「살아 있는 은유(La metaphore vive)」 장경(1997)²¹),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이수련(2006)²²), 「전통적 은유 이론들과 Lakoff 은유이론의 비교」 김기수(1997)²³ 등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논문들을 살펴볼 수 있다.

4. 개화기 신소설에서의 은유 양상

근대 전환기였던 개화기의 핵심적 과제를 단순화하면 근대화와 자주성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국가>와 <교육 및 지식>, <여성과 여성의 삶>에서의 은유 양상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4.1 <국가>

먼저 존재론적 은유로서 [국가는 집]이라는 은유를 찾을 수 있었다.

"또 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려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한당이 칼이나 옥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를 겁탈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 있소?"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소설문학대계1, 452쪽)

이러한 인식은 외세의 위협 상황 하에서 국내를 집안, 국외를 집 밖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를 집으로 인식하는 것은 국민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즉, 어떠한 다른 관계보다 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집안과 집밖의 관계로 볼 때, 집안은 독립적

14) 홍진기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6)

15) 송원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5)

16) 장지연 경북대학교 대학원 (1993)

17) 홍이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7)

18) 변정민 동국어문학회 (2002)

19) 김영실 한국응용언어학회 (2006)

20) 최영진 비평과 이론 vol 9. no2 (2004)

21) 장경 龍鶴논집 vol 26. (1997)

22) 이수련 한글학회 (2006)

23) 김기수 한국영미문학회 (1997)

이고 안전한 보호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독립성이 외부로부터 침해되는 경우 다른 은유가 형성된다.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에서 확인되는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의 소유물], [강국은 부모, 약소국은 힘없는 자녀]라는 은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집의 관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체 자체의 내부적 문제를 드러낼 때에도 [국가는 집]의 은유를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하냐 할진대, 말 한마디로 그 형편을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지라. **가령 한 사람의 집으로 비유할진대**, 세간은 다 판이 나고 자식들은 난봉이라, 누가 보든지 그 집은 꼭 망하게만 된 집이라." (이인직, 은세계. 한국소설문학대계1, 327쪽)

[국가는 집]이라는 은유는 국가란 구성원과 세간 등으로 구성된 조직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조직적 체계가 내부로부터 무너지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는 집]이라는 은유가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침해해서는 안 되는 '독립적, 자주적 보호처'의 의미를 가지지만, 내부적 관계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지탱하는 구조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집]이라는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적 은유인 [국가 형성은 건축 과정]이라는 은유 속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즈세이 보아서 저기는 의심업는 성감이야 **저 나라 설립흠이** 저리굉장흐니 저보다 더 신기홀일이 눈에 계속..." (Uniconc 비행선.txt(691))

"티빅극의 말을 드른즉 **저 나라의 건설흠이** 마셔의 툄법제정 흐기전이라닛가 구미열강의 ..." (Uniconc 비행선.txt(693))

위에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설립하고, 건설하는' 건축 과정으로 은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화라는 것 또한 과정의 문제이며, 근대화 시기에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고 나라를 이에 맞게 건설하고 완성하는 것이 당시의 화두였음을 볼 때, 이러한 은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 국권의 수호는 당면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는 소유물 혹은 상품]이라는 은유로 드러난다.

".....조그만치 남보다 먼저 알았다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남의 나라 빼앗기**와 남의 백성 학대하기와 군함, 대포를 만들어서 악한 일에 종사하니....."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소설문학대계1, 455쪽)

"그 정부에 옳은 마음 먹고 벼슬하는 사람 누가 있소?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있다고 하시오. 만관 경륜이 임금 속일 생각, 백성 잡아먹을 생각, **나라 팔아먹을 생각**밖에 아무 생각 없소."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소설대계1, 460쪽)

일본이나 서구 열강들이 [국가]를 [빼앗을 수 있는 소유물]로 보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러한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국가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은유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를 [사람]으로 은유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소설문학대계1 460쪽)

"멸흔는 흑독흔법을 쓰던세월인디 조감스의아오 조참판이 **국가의 쇠약함**을 분히녀여 정부를 기혁코자하다가 동모자가..." (Uniconc 원앙도299)

"한사람 두사람으로부터 거세가 본밭아 적게 흔 집만 멸망흔 썩안이라 크게 **나라까지 쇠약케 하느니** 이는 곳 억만명 황인중의 금일 참혹흔 형상을 당흔소이..." (Uniconc 구마검.txt(231))

그런데 위의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다. 바로 국가를 온전한 사람으로 은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깨끗한 창자가 없다.'거나 '국가가 쇠약하다'는 등의 부정적 은유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시 지식인 사회가 국가가 내외부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2 <교육 및 지식>

개화기에 서구 학문의 유입은 지식인들로 하여금 계몽에 나서게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에의 열망과 계몽의지 역시 신소설에 은유화되어 있다.

먼저 [교육은 개간사업]이라는 구조적 은유 속 [지식은 영토]라는 [존재론적 은유]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여자도 타국 여자와 같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에게 대한 삼천리 강토도 보전하고 우리 여자 누백년 금수도 면하리니, **지식을 넓히려면** 하필 어렵고 어려운 십년 이십년 배워도 천치를 면치 못할 학문이 쓸데 있소?" (이해조, 자유종. 한국소설문학대계1, 417쪽)

"고등흔자이라야 참여하느니 아모조록 너 **지식을 넓혀서** 할것이지 남의 지식을 막고 나만 못하도록하면" (Uniconc자유종.txt(106))

또한 [교육은 상거래]라는 구조적 은유 속에 [교육은 상품 혹은 소유물]이라는 은유를 확인할 수 있다.

"내가싱각흔일이잇시니 나와갓치 원산항에가서 **학교교육을** **밧아보려**느나 네학문이잇셔야이..." (Uniconc 금의쟁성.txt(164))

"토론이란것은 본연이 오른줄알고도 **지식교환**하누라니 억지말을 하지마는 존혼도 악습이 오 직취도...." (Uniconc명월정.txt(186))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공부하여 **학문 지식**이 **넉넉한 후에** 아내도 학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장가들겠다." (이인직, 혈의 누. 한국소설문학대계1. 53쪽)

우리는 이러한 은유 양상에서 [지식 혹은 교육]이 [받을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은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위의 은유들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은유의 대상어가 된 '지식'이나 '교육'이 전통적인 것이 아닌 개화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대상어들이 대개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가진 서술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립적 의미를 가진 '교환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식 혹은 교육]은 '좁아지는 것이 아닌 넓어지는 것, 주거나 파는 것이 아닌 받는 것, 부족해지는 것이 아닌 넉넉해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개화기에 개화된 지식이나 교육이 '지식'이라는 단어, '교육'이라는 단어로 무표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이며 가져야 하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식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은유 외에 [교육은 양육]이라는 은유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순이 분연히 대답하되 **부인의 교육이 발달됨**은 사회에 덕하야 큰 행복이라 하겠거날 문 형 (Uniconc 설중매.txt(92))

"작년에 스범학교에서 졸업까지 하였으나 **학문이 유치하니** 오히려 붓그림소 주인은...(Uniconc 목단화.txt(886))

위의 예에서 우리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는 [유아]의 상태로 은유되어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람이 발달되어 성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은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사람]이라는 은유는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보기에 봉즈가마음이자상하고 처신이온아하며 또한 **학문이 너무 얕전하더구나** 「어머니께서 그러케말씀을 하시느....." (Uniconc 안의성.txt(46))

한편, 교육은 주로 말과 글로 이루어진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글에 대한 은유 양상에서도 당시 교육에 대한 관점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대저 **글이라 하는 것은 말과 소와 같아서 그 나라의 범백정신을 실어 두나니**, 우리나라 소위 한문은 지나의 말과 소라...." (이해조, 자유종. 한국소설문학대계1, 416쪽)

[글은 말이나 소], [정신은 짐]이라는 은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문은 중국의 말과 소]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교육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이외에 중국 한자와 유교적 교육에 반감을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은유 양상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거룩하고 고명한 학문이 있는 듯하나 우리 여자 사회에 **그 썩고 냄새나는 천지 현황** 글자나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오?" (이해조, 자유종. 한국소설문학대계1, 417쪽)

[한문]을 [썩고 냄새나는 부패물]로 보는 것인데 이는 [한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봉건적 유교 사상과 교육]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조들의 의식과 함께 같은 작품의 다음과 같은 예시는 온건한 의견 또한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도 항상 말하기를 자국 정신을 보존하려면 국문을 써야 되겠다 하지만 그 방법은 줄지에 계획할 수 없습니다.

가령 남의 큰 집에 들었다가 그 집이 본래 남의 집이라 믿음성이 없다 하고 떠나려면, 한편으로 차차 재물을 준비하고" (이해조, 자유종. 한국소설문학대계1, 419쪽)

위의 예시에서도 [한문]자체를 [집]으로 은유했다기보다는 [한문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집]으로 은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 논의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이 [집]을 이루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을 대체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점진적으로 다른 집을 형성하며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즉, [한문]과 [기존의 교육]을 [부패물]로 은유하고 있는가, [집]으로 은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둘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3 <여성과 여성의 삶>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화기의 근대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신소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신소설에서의 여성의 은유 양상을 보자.

"우리 여자가 기천 년을 **암매하고 비참한 경우에 빠져 있었으니** 이렇고야 자유권이니 자강력이니 세상에 있는 줄이나 알겠소? 일생에 생사고락이 다 남자 압제 아래 있어, **말하는 제웅과 숨쉬는 송장을 면치 못하니** 옛 성인의 법제가 어찌 이러하겠소." (이해조, 자유종. 한국소설문학대계1, 414쪽)

"남자들 마음에는 **아들만 귀하고 딸은 귀치 아니한지** 일 분자라도 귀한 생각이 있으면 사지오관이 구비한 자식을 어찌 차마 **금수와 같이 길러 이 같은 고해에 빠지게 하는고?**" (이해조, 자유종. 한국소설문학대계1, 415쪽)

"다만 가장의 비위만 맞춰,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니, 진소위 **밥먹는 안석이요, 옷입은 퇴침이라**, 어찌 인류라 칭하리까?" (이해조, 자유중. 한국소설문학대계1, 413쪽)

이상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은유의 양상은 봉건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에 대한 은유이다.

'비참한 경우에 빠져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봉건적 여성의 삶은 늪]이라는 은유, '말하는 계몽', '숨쉬는 송장', '밥먹는 안석', '옷입은 퇴침'에서 볼 수 있는 [여성은 사물] 은유, [아들은 보물], [여자는 금수]와 같은 은유에서 우리는 봉건적 사회 체제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가정 내에만 얽매어 있는 여성들의 상태에 대한 당대의 문제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봉건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를 이러한 은유를 통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개화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신소설에서의 은유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가>, <교육 및 지식>, <여성 및 여성의 삶>이라는 세 부분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국가>와 관련된 은유 양상으로는 [국가는 집], [국가형성은 건축과정], [국가는 소유물 혹은 상품],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가 있었다. [국가는 집], [국가형성은 건축과정]이라는 은유는 개화기에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것이며, [국가는 소유물 혹은 상품]이라는 은유는 국권을 위협하고 위협당하는 상황을 드러낸 은유이고 [국가는 사람]이라는 은유는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기상태를 드러낸 은유이다.

<교육 및 지식> 관련하여 [지식은 영토], [교육은 상품 혹은 소유물], [교육은 양육], [교육은 사람], [글은 말이나 소], [정신은 집], [한문 및 봉건적 교육은 부패물], [한문 및 봉건적 교육은 집]이라는 은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과 지식이라는 말이 더 이상 전통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화된 지식과 교육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화된 지식과 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긍정적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여성 및 여성의 삶>에 대한 은유는 많지 않았는데 그나마 존재하는 것도 봉건적 삶에서의 여성의 상태에 대한 은유였다. [봉건적 여성의 삶은 늪], [봉건적 상태의 여성은 금수], [여성은 사물] 은유에서 보듯 봉건적 삶에서의 여성에 대한 부정성을 드러내는 은유가 전부였다. 이는 개화기에 기존 관습에 얽매어 있던 여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이지 않은가 생각한다.

개화기 언어 양상을 연구하면서 아쉬운 점은 '신소설'로만 한정된 자료 선정, 그것도 너무나 극히 일부만의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대의 미디어 자료들이나 교과서 등의 다른 자료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연구를 마치겠다.

참고문헌>

- 고영근, 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 밖에 (2002). *문법과 텍스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미형 (2005). *생활의미론 -의미를 인식하며 사는 방법*. 한국문화사.
-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4).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교류*. 국학자료원
- 문금현 (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태학사.
- 서정수 (2006). *국어문법*. 한세본
- 설성경 (2005). *신소설연구*. 새문사
- 이광호 (2004). *국어 어휘 의미론*. 도서출판 월인.
- 이기갑 외 (2008). *언어유형론 1,2,3*. 도서출판 월인.
- 이성범, 장인봉, 전해영, 최명원 (2002). *화용론 연구*. 태학사.
- 이성범 (1998). *언어와 의미*. 태학사.
- 이익섭 (2004). *국어학 개설*. 學研社.
- (2006).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인직 외(1995). *신소설*. 한국소설문학대계1. 동아출판사
- 이창안 (2002). *현대사회의 화법*. 세종출판사.
- 임지룡 (2005). *인지의미론*. 탐출판사.
- (2005). *국어의미론*. 탐출판사.
- (2006). *말하는 몸 -감정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언어와 표현> 편찬위원 저. (2004). *현대인의 언어와 표현*. 도서출판 동인.
- 차현실, 전해영, 박창원 (1998). *현대국어의 사용실태 연구 -방송과 신문에 사용된 언어를 중심으로-*. 태학사.
- 최기호, 김미형, 임소영 (2005).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회의 유쾌한 춤사위를 위하여-*. 한국문화사
- 황경자, 이수미, 윤영은, 전해영, 장인봉 (2002). *언어의 의미와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BK21언어학 총서2>*. 태학사.

Lakoff, G. & Joh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노양주 나익주 옮김.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Leech, G.N. (1974/1981). *Semantics*. Harmondsworth: Penguin.

Lindsay J. Whaley (김기혁 역) (2008). *Introduction to typology*. 소통.

William Croft and D.Alan Cruse (2002).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Zoltán Kövecses (이정화, 우수정, 손수진, 이진희 공역. 「은유」). (2003). *Metaphor*. 한국문화사

<학회지>

태평양학술문화재단 (2007). 제16집. *여성과 사회 (Woman & Society)*.

(2008). 제27집. *여성과 문화 (Woman & Culture)*.

한국어 의미학회. 제13회~ 제24회. *한국어 의미학(Korean Semantics)*.

<논문>

- 김기수 (1997). 「전통적 은유 이론들과 Lakoff 은유이론의 비교」
- 김영실 (2006). 「일상 언어로서의 영어 은유에 대한 EFL 학습자의 인식-개념적 은유 이론에 기초한 질적 분석」
- 김지영 (1999). 「공간의 은유적 해석에 관한 연구」
- Li, Yelen (2006).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은유 표현 연구-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정치 은유 표현」
- 변정민 (2002). 「한국어의 은유 표현 연구-정치은유를 중심으로」
- 송원대 (1995). 「셰익스피어의 메타 연극에 나타난 Theatrum Mundi 은유연구 -Hamlet, Macbeth, As you like it, The tempest를 중심으로」
- 신정애 (2000). 「구조 언어학 모델구성에 있어서 은유의 역할-소쉬르와 엘슬레우의 언어 이론을 중심으로」
- 이수련 (2006).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성 연구-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 유근미 (1998). 「은유의 논증 기능-광고에 사용된 은유 표현을 대상으로」
- 유진옥 (2005). 「은유로서 ‘여성’-여성 미학의 딜레마」
- 원순란 (1994). 「여성인체의 은유적 표현에 대한 연구」
- 장경희 (1997). 「살아 있는 은유(La metaphore vive)」
- 장지연 (1993). 「‘은유(Metaphore)’의 의미론적, 화용론적 이해」 「
- 조영수 (1998). 「건축 공간의 은유적 의미체계와 은유의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 전현주 (2000). 「서비스 광고에서 나타나는 은유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인쇄 매체 광고의 심상정보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 전혜영 (2005). 「여성관련 은유 표현에 대한 연구-속담·속언을 중심으로」, 「언어구성에 나타난 남녀 은유의 양상」
- 정지현 (2001). 「회화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은유와 환유-여성성(性)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최영진 (2004). 「문화적 은유와 철학적 은유」
- 한은실 (1982).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이호 (1987). 「은유(Metaphre)의 연구-언어학적 해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 홍진기 (1996). 「은유와 의미의 불확정성의 문제- 비트겐슈타인적 관점에서」
- 현은경 (1979). 신소설의 주제 및 시대적 성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